

“제2공항 갈등해소 활동 협조를”

도의회 특위, 이달중 원 지사 면담 요청 예정 성사여부는 미지수...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특위 활동 협조를 요청하는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 및 활동 등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와 의회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유화적 제스처'가 제주도와의 관계 개선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특위는 지난 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 면담 요청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 면담 요청 추진은 특위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정의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위는 1월 중 특위 위원 6명(박원철, 조준배, 강민숙, 강성익, 고현수, 홍명환 의원)이 면담에 참석해 ▷제2공항 관련 예산(7개 사업·3억2434만6000원)에 대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이전 집행 중지 ▷특위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사회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때 정보 제공, 토론 참여 등에 적극 협조 ▷특위 활동에 따라 최종 도출된 제2공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적극 반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곧 제2공항 관련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혀 온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세해간담에서 원 지사는 “다시 월점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시 추진 여부나 입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특위 활동에 부정적

인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연말 202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사무관 리비 2억원)' 비용만 '부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제2공항 갈등 원인 분석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2월 중 완료되는 용역은 제2공항 건설 관련 찬·반 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갈등 발생 주요 쟁점 등을 심층 파악하고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등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오은지기자 ejoh@halla.com



지난 3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계획대로”... 제2공항 추진 재확인

제2공항 도민 찬반갈등 속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재확인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 속 제주도의회 주도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기존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가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항공사업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확정, 고시했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분야가 글로벌 시장의 지속 성장 예측

에도 불구하고, 경쟁심화, 대내외 여건 악화 등 항공운송시장 수직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 중심 산업구조를 인바운드 중심 신규수요 창출 구조로 전환한다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항의 지역경제 구심점 역할 강화를 내걸었다. 이와 관련 기본계획 내용에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광주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공항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또한 기본계

획 고시 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로부터 잇따라 보완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며 항공분야 각 분야를 항공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항공정책 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5년 단위 중장기 항공 종합계획이다. 항공안전, 공항개발 등 타 항공분야 계획에 우선하고 항공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항공법 개정으로 2008년 신설된 이 계획은 2010~2014년 1차, 2015~2019 2차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이 수립됐다.

서울=부미천기자 bu8385@halla.com



지난 3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용암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 지사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 안돼”

기자간담서 도 입장 재확인 “오리온 명확한 의사결정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세해 인사차 제주도청 기자회견을 찾은 원 지사는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현재 물 공급한다는 계약서가 없다”면서 “(오리온이) 이미 공장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생산시장을 노리는 국내 공급을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그동안 오리온 측과 두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인사수준의 만남이었다면서 “혹시 언론이나 공무원들도 지사가 따로 만나 어느 정도 보장하는 언질을 준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고, 저는 거꾸로 테

크노파크나 물정책과가 오리온측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내 공급해줄 것처럼, 아니면 국내공급을 이야기할 때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게 있는지 법무특보를 비롯해 법무담당관이 살살이 찾아봤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도지사로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묵시적인 언질이라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내 판매에 대해 물량과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산과 근거 자료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2월까지 1차 시한은 안했으니 시한은 한 번 더 드릴 것”이라면서도 “도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리온은 최고 경영진에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돼야지,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도를 무시하면서 기정사실로 밀고 가려한다면 우리는 계약이 없기에 공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경고했다.

오은지기자

수놓음 공동체가 있는 마을만들기 박차

제주시, 3개 분야 91억 투입

제주시는 세해 마을활력 사업에 3개 분야 91억7000만원을 들여 제주 수놓음 공동체가 있는 마을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사업비 67억3000만원 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지방이양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형 마을기반 시설 확충 69억원, 지역특성 자원·가치를 활용한 마을 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베스트

마을 조성 2억5000만원, 사업완료마을 사후관리 2억원, 다시 찾고 싶은 체험휴양마을 조성 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 및 다목적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11억원,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1억여원, 마을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킹그룹 운영 5000만원을 투자한다. 정착주민과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해 정착주민 활동 지원과 마을기업 육성 2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제주시울 ▷김승언
▷65 ▷자유한국당
▷요양보호사 ▷현
YWCA 간병협회
회원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동홍동 ▷김장순
▷48 ▷더불어민주
당 ▷기아자동차 차
장 ▷전 동홍초등학
교 운영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귀
포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동홍동 ▷오현승
▷56 ▷자유한국당
▷자영업 ▷전 동홍
동연합청년회장, 전
동홍동체육회장



▶대천·중문·예래동
▷임정은 ▷46 ▷더
불어민주당 ▷자영
업 ▷전 중문청년회
의소 회장 ▷전 중문
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위원장



▶대정읍 ▷박정규
▷44 ▷더불어민주
당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전 보성초
등학교 학교 운영위
원회 운영위원장, 현
서귀포시 법무사 사무회 회장



▶대정읍 ▷정태준
▷52 ▷더불어민주
당 ▷대정영농조합
법인 대표 ▷전 명지
대학교총학생회장
▷더불어민주당제주
도당 부위원장



<알림>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뤄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면을 통해 예비후보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경자년(庚子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8대 회장 취임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 및 제8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1월 10일(금) 11:00~13:00

□ 장소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

- 내용
- 제8대 고승화 회장 취임식
- 새해인사
- 참가자 교례
- 오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무대행 부형중

소학당 古典·易學교실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원문교육전공(석사)
· 海東 朴善玟先生 「소학」 수필(光復, 1984), 韓契 魏啓源先生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수필(光復, 1996), 眞山 文明洙先生 「주역」 수필(光復, 1997), 大山 金瑞鎮先生 濟州 東方易易講義 修了(濟州, 2004).
· 소학당원문(원문)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한문」, 「생활역학」 강사
· 제주대학교 교양교육원 「한문」, 「생활역학」 강사
· 제주대학교 교양교육원 「한문」, 「생활역학」 강사
· 제주대학교 교양교육원 「한문」, 「생활역학」 강사

요일	시 간	교실명	수업내용	수업 기간	수업 시작일
월	오전 10시~11시 30분	[시작반] 고전교실1	「주역」 상경 [周易기초부터 시작]	1년	1월 6일
	저녁 7시 30분~9시	역학교실2	사주명리(심화)	1년	
화	저녁 7시 30분~9시	고전교실2	「고문진보」 後集	1년	1월 7일
수	오전 10시~11시 30분	[시작반] 역학교실1	庚子年(2020)재력보기 ※南山민력 중심	2개월	1월 8일
금	오전 10시~11시 30분	[시작반] 인문기초반	한자·한문해석 [기초]	1년	1월 10일

○ 교육기간: 2020년 1월 6일(월) ~ 12월 24일

○ 모집인원: 교실별 5명~10명 내외

○ 수강료: 월 60,000원(월납기준) ※ 교재비 별도

○ 장 소: 소학당한문학원(제주시 서사로 108, 2층)

○ 수강료 입금처: 농협 178495-56-072440(이우림)

○ 접수상담: [전화신청가능] ☎ 064-757-4561, H.P 010-3077-4561

○ 교실별 수시모집.

소학당한문학원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약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월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1월 30일 ~ 8월 21일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마감일 : 근시일 접수 마감예정

취업 7월 23일 종료과정 21명중 20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won.com

■ 제목: 국비지원 (세무회계자격증(FAT1급)) 취득과정 훈련생 모집

■ 대상: 근로자/실업자/일반 회계초보자

■ 기간: 129~422 ■ 시간: 19:00~22:00 월~목 주4회

■ 문의: 064-742-9175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제주도내 600여 태양광발전 사업자 제위께

저는 애월읍 어음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강용권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갑골 농사만 하지 말고 갑골밭을 폐원해서 전기 농사도 하도록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 했는데, 예상외로 SMP 값은 하락하여 100원대가 보이고, REC 값은 뺄원입니다. 수익은 적고 각종 세금 등 지출은 많아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에 정부나 제주도정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 끝에 도내 태양광발전 사업자 600여명이 모여 오늘의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대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광고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내 600여 태양광발전 사업자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시고 동의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우선 제가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일시를 마련하겠습니다.

연락처 010-5379-1890 강용권